
「The Next Big Thing」의 주요내용

- 「Foreign Policy」誌가 예측한 13개 주요 미래이슈 정리 -

경 제 정 책 국
미 래 전 략 과

< 목 차 >

1. 서론	1
2. 주요 미래 이슈(the next big thing)	2
① A New You(새로운 당신)	2
② Personal Education(개인 맞춤형 교육의 확산)	2
③ Anger Management(감정 다스리기)	3
④ Happiness(진정한 행복)	3
⑤ Shrinkage(금융부문 위축)	4
⑥ America(미래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)	4
⑦ Neo-medievalism(新중세론)	5
⑧ Africa(아프리카의 잠재력)	6
⑨ Resilience(탄력성 개념의 등장)	7
⑩ Biofuels(바이오연료 산업의 발전)	7
⑪ Water(물 부족 시대의 도래)	8
⑫ More of the Same(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계)	8
⑬ Bigger Bang?(더 큰 변화)	9

「The Next Big Thing」의 주요내용

◇ 미국의 격월간 시사 전문지인 「**Foreign Policy**」(5~6월호)는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주요 미래 이슈를 **13개의 'the next big thing'**으로 분류하여 소개

- 신인류의 등장, 가치관의 변화, 발전 가능성 있는 산업, 국가 경쟁력의 변화, 자원 고갈 등의 다양한 이슈에 주목

※ 「Foreign Policy」: 1970년 창간된 미국의 격월간 시사 전문지로 현재 Washington Post지의 온라인출판국에서 발간 중이며, 다양한 정치·경제 이슈들의 동향 파악 및 트렌드 분석 수행

1. 서론

□ 현 위기를 기점으로 세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

- 자본주의의 위기, 세계 정치 세력의 재편,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, 기술 진보 등이 향후 변화를 이끌 주요 동인
- 역사적으로 변화는 '창조적 파괴'를 통해 세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 왔으나, 그 이면에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도 존재

* 1930년대 공학의 발전은 2차 세계대전의 대학살을 불러왔으며, 2000년대의 신용부도스왑과 부채담보부증권은 현 금융위기를 야기

⇒ 주요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위협 요소에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

2. 주요 미래 이슈 (the next big thing)

① A New You(새로운 당신)

- 생명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, 이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
 - 이미 조직 프로그래밍(tissue programming)¹⁾, 세포공학(cell engineering)²⁾, 로봇공학기술(robot engineering)³⁾은 상당 부분 기술 발전이 진척된 상황
 - 1) DNA기술을 통해 세포를 조작하거나 원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등 실험자의 목적에 맞게 조직을 프로그래밍하는 기술로, 박테리아 조직을 변형시켜 화학약품, 연료,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
 - 2) 세포를 배양하여 인간의 장기 등 신체 기관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의료 부문에 활용
 - 3) 건축, 수송, 복지 등으로 로봇의 역할이 확대된 데 이어 인공 다리, 인공 팔, 인공 눈, 인공 귀 등 인간의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음
 - 유전자 곡물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이 확산되고 있으며, L'oreal, Intel, Procter& Gamble 등의 대기업들도 생명 공학에 투자
- ⇒ 인류는 생명의 암호를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“종의 진화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新 인류”(Homo sapiens → Homo evolutis)로 변화하는 중

② Personal Education(개인 맞춤형 교육의 확산)

-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, 이로 인해 기존에 부유층만이 누리던 개인 맞춤형 교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양상

-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집합 교육은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쟁력 향상에 한계라는 공감대 형성
 -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 수단의 발전으로 인해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기술적 기반도 마련된 상황
- ⇒ 개인 맞춤형 교육은 사회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는 한편, 개인의 성취욕을 자극하여 교육에 대한 열의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

③ Anger Management(감정 다스리기)

- 미래에는 국가가 호르몬 등의 신체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개인의 폭력성을 통제할 것
 - 막 태어난 개인의 몸 속에 캡슐 등 관련 장치를 투입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중앙 통제센터로 전송되어 관리
- ⇒ 이는 성폭행 등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, 개인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

④ Happiness(진정한 행복)

- 경제 주체들은 금번 위기를 거치면서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
 - 위기 기간 동안 실직, 업무시간의 감소 등으로 친구,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비물질적 가치가 주는 행복으로 시선을 전환
 - 인간관계, 일을 통한 보람, 건강 등이 진정한 행복의 동인
 - 사회의 복지 척도도 GDP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것
- ⇒ 위기는 행복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전환시키고, 이는 위기가 지난 후에도 개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것임

⑤ Shrinkage(금융부문 위축)

- 가까운 미래에 금융부문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
 - 은행의 기능 축소, 정부의 규제 강화, 기업의 차입 감소, 포트폴리오 투자 위축 등으로 금융 부문이 위축
- ⇒ 그 결과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성장과 고용이 악화되고, 그 부담은 주로 취약 계층이 지게 될 것

⑥ America(미래 변화된 세계에서 미국)

- 위기 이후 세계는 산업 보조금 등을 통한 국가 자본주의의 강화, 금융 부문의 축소와 규제 확대 등의 변화를 겪을 것
- 산업 보조금 확대로 인해 비교적 저렴해지는 공산품들과 달리 식료품과 원자재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금융버블의 붕괴로 인해 금융중심지(뉴욕, 런던)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, 자원이 풍부한 농촌 지역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으로 기능이 특화된 도시(라스베가스 등)가 발달
- 미국은 위기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변화된 세계에서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보유
- 풍부한 천연 자원 및 농업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가격체계 하에서 이득을 볼 것
- 만성화된 무역 적자국으로서 중국, 일본 등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에 비해 수출 산업 재건이 수월

- 높은 신용도로 인한 자본 유입, 풍부한 노동력 등을 통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이익 확보 가능

* 이민자의 증가로 미국의 인구는 2050년에 4억~5억이 될 것이며, 2100년에는 10억이 될 것으로 전망

⇒ 미국은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

7] Neo-medievalism(新중세론)

○ 혼란스럽고 균열된 세계 하에서 도시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新 중세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

- 현재도 전세계적으로 40개의 도시지역이 세계 경제의 2/3와 혁신의 90%를 차지

- 중세시대의 한자동맹처럼 함부르크와 두바이가 상업연합을 맺고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할 것

* 향후 국부펀드(sovereign wealth funds), 사설 군사 용역업체(private military contractors) 등과 연계되어 지정학적 단위를 형성

⇒ 新 중세사회에서는 Bill Gates, George Soros 등 포스트 모던 메디치들의 활약*이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되지만,

* 거대 기업을 경영하면서 권위적인 정부를 비판하고, 의료 봉사나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주체들이 많아질 것

- 에이즈, 사스, 테러리즘과 해적, 기후변화 등 도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위협 요소들도 존재함을 고려해야 할 필요

8 Africa(아프리카의 잠재력)

- 부패, 질병, 전쟁, 가난 등으로 대표되던 아프리카가 지금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, 위기 이후 더욱 강력한 국가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
- 발전의 주요 동인은 경제력 향상, 기술 진보, 금융시스템 성숙이 될 것

발전의 동인	주요 내용
경제력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질 GDP(\$, billion) : 130(1980s) → 300(2008) * Goldman Sachs 발표 ▪ 1990년대 2% 성장에 이어 2000년대 연 7% 성장 ▪ 거버넌스가 개선되었으며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안정 확보 * 美 세계 인권 감시 단체인 Freedom House에 의하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33개의 정부가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자유를 보장(1980년에는 19개)
기술진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아프리카인 3명 중 1명이 휴대폰 소유
금융 시스템 성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아프리카 전역에 16개의 주식시장이 있으며 500개 종목이 거래 ▪ 금융자료들에 대한 접근가능성 향상 * 17개의 국가들이 신용 등급 보유

- 또한,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지나치게 의존해 온 선진국의 원조가 동 위기를 계기로 감소 → 자체 혁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
- ⇒ 스스로의 잠재력 향상 노력을 통해 아프리카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

9] Resilience(탄력성 개념의 등장)

- 불확실성 하,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으로 인해 '지속성 (sustainability)'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'탄력성(resilience)'이 등장
 - '지속성'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적인 개념으로 위기 상황에 취약
 - '탄력성'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제 하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견뎌내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둠
 - * 탄력성은 다양성, 잉여성, 분산화, 협력, 투명성, 영예로운 실패, 유연성, 통찰력을 그 원칙으로 함
- ⇒ 예기치 못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함으로써 생존을 넘어서 번영을 추구하도록 할 것임

10] Biofuels(바이오연료 산업의 발전)

- 위기를 통해 자원 다변화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 증가
 - 바이오연료의 잠재적 공급량은 충분하며, 연료 생산 공정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
 - 현재 수요에 비해 적은 양이 생산되어 바이오연료가 당장 석유를 대체하기는 어려우나, 일부 국가들은 연료 혼합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
- ⇒ 자원 문제 대처 및 외화 확보를 위해 향후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

11 Water(물 부족 시대의 도래)

- 인류가 사용하는 물의 70%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으나, 지하 대수층은 해마다 줄어들고 강은 말라가는 등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
 - 특히, 서부 스페인, 미국 대초원지대 등 세계 주요 농경 지역을 중심으로 물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
 - * 국제물관리연구소의 전직 소장은 “현 추세대로라면 우리는 매년 미국과 인도의 전체 곡물생산량을 합친 것만큼 손실에 직면할 수 있다”고 경고
 - ‘오만’은 농업용수 등 자연의 일부로서 사용이 자유로운 물조차도 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사용 비용을 지불토록 하였으며, 이는 적절한 수준으로 물 사용을 제한
- ⇒ 실효성 있는 물 정책의 수립과 국내외 시장메커니즘 형성을 통해 물 부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

12 More of the Same(크게 달라지지 않는 세계)

- 미래 세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지도 모르며, 현재 변화의 양상과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수도 있음
 - *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고, 미국은 세계의 가장 번영한 국가이면서 여전히 높은 부채를 가진 나라일 것
 - 향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, 해수면 상승과 고령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예측가능한 변수들도 다수 존재
- ⇒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미래를 준비할 필요

13 Bigger Bang?(더 큰 변화)

○ 세계는 앞으로 무장 충돌, 정치 지형의 재편, 경제 대변동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되겠지만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변화는 훨씬 뒤인 21세기 중반쯤에 있을 것

- 이는 '인간의 두뇌 능력과 신경시스템의 발전*'. '기술 진보에 대한 반감', '우주에 대한 이해의 확대' 등 서로 다른 세 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발생

* 최근 Brown 대 연구진은 신체 마비 환자가 뇌파를 통해 컴퓨터 커서를 조정하는 데 성공 → 이러한 두뇌 능력의 발전이 지속될 경우 2050년에 인류는 고도로 발달된 사고 능력과 지적 수준을 가진 신인류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

⇒ 급속한 기술 진보를 통해 미래 세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양의 정보와 기술 발전을 접하게 될 것